

가계 여윌돈, 4년 9개월 만에 최저

'2분기 중 자금순환'

자금잉여 규모 13.7조

전 분기보다 10.6조 줄어

2011년 3분기 이후 최저치

"빛내 집사고 씬씀이 늘려"

저금리 기초 속 활발한 주택거래가 이어지면서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2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3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20조2000억원)보다 16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금융기관 차입금은 37조원으로 1분기 19조2000억원 보다 17조8000억원이 늘어나면서 2배 이상 많아졌다. 이는 집을 사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차입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금운용 규모도 지난 1분기보다 5조8000억원 늘어난 5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금융기관 예치금은 23조5000억원에서 19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가계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저축성 예금 대신 보험, 채권, 펀드 등의 투자를 늘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금운용에서 자금조달 규모를 뺀 자금잉여 규모는 1분기 24조3000억원보다 10조6000억원 줄어든 1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3분기 6조6000억원 이후 최저치이자, 2013년 3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가계가 쓰지 않고 남긴 여윌돈이 전 분기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것은 개학이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주택시장과 분양권 시장 호조로 주택구입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는 세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금잉여가 1분기 5조3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한은 차입금 상황 및 재정증권 만기도래 등으로 자금조달 규모가 1분기 36조6000억원에서 2분기 8조3000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금운용 규모는 금융기관 예치금, 정부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41조8000억원에서 17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비금융법인 자금부족 규모가 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3조5000억원에

서 소폭 줄었다. 예금취급기관차입금 등 간접금융이 축소된 반면 직접금융이 확대, 자금조달 규모가 1분기 21조4000억원에서 2분기 2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자금운용 규모도 전분기(17조9000억원)보다 늘어난 20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총 금융자산 규모는 전분기 말 보다 187조원 늘어난 1경5133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경50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53조4000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비금융법인기업(13조2000억원), 일반정부(8조5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3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일반정부(22조4000억원), 비금융법인기업(15조2000억원) 순이다.

/뉴시스

1인당 주택담보대출 1억 넘어

은행 1억100만원 · 여전사 1억790만원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원리금 연 952만원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모두 1억원을 넘어섰다.

28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1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은행권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2012년(8710만원)에서 지난해(9930만원)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6월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신용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전사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2013년 9200만원을 기록한 뒤 처음으로 1억원을 웃돌았다. 대출

자 1명이 여전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액은 1억790만원으로 은행보다 높았다.

보험사는 약 9780만원, 저축은행은 8450만원, 상호금융사는 784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원리금(원금과 이자)은 지난해 말 기준 952만에 달했다. 가구당 월평균 약 8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빛 1억원, 연간 상환액은 1000만원 시대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2014년에 추진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시대를 '억' 단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갤럭시노트7 예약자 대상 판매 재개

'일반 판매'는 내달 1일부터 시작
이통3사, 갤럭시노트7 프로모션 연장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판매가 28일부터 정상화된다.

이날에는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개통을 시작하며 일반 판매는 10월 1일부터 이뤄진다.

갤럭시노트7의 사전 예약은 지난달 6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으며 40만여 명의 고객이 신청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전 예약자들에게 증정되는 기어핏2 프로모션은 그대로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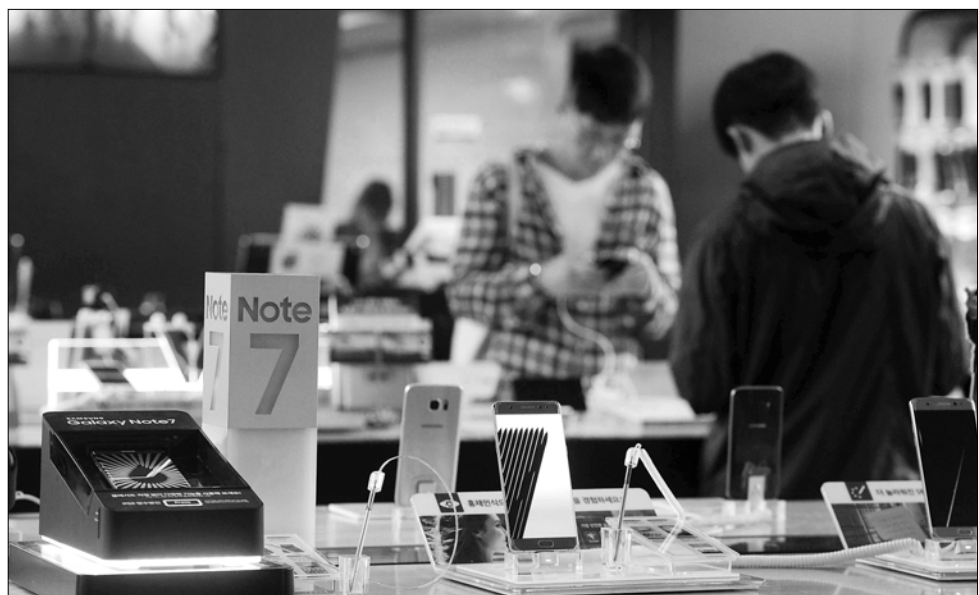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폭발 등의 사고로 지난 1일자로 국내 유통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상당수 사전 예약 고객들이 단말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갤럭시노트7 판매 재개를 기점으로 이통통신3사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노트7 판매가 중단되면서 9월 휴대전화 신규·번호 이동시장도 열어붙은 바 있다. 실제 이동통신 3사는 프로모션 기간을 당초보다 연장하는 추세다.

우선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 가운데 단독으로 운영한 'T갤럭시클럽' 가입기회를 다음달말에서 11월까지로 연장한다.

T갤럭시클럽은 월 9900원 이용료로 분실, 파손을 보상해준다. 가입 1년 후 제품을 반납하고 삼성전자 최신 기종으로 기기를 바꾸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SK텔레콤은 'T삼성카드2 v2' 신용카드 할인혜택도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KT는 '프리미엄 슈퍼할부카드'를 통해 갤럭시노트7을 할부 구매한 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통신 3사가 갤럭시노트7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판매 재개한 28일 서울 세종대로 키스퀘어에 갤럭시노트7이 전시돼 있다.

객에게 이용 실적에 따라 2년간 최대 48만원의 통신비를 할인해준다. KT멤버십 포인트(최대 5만원 추가할인)는 물론 신용카드 등 제휴사 포인트를 모아 추가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LG유플러스도 갤럭시노트7 출시와 함께 진행했던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했다. 사전 예약 고객이 다음달 15일까지 갤럭시노트7을 개통하면 무선충전패드, 배터리팩, 수피겐 케이스 중

하나를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신한 제휴카드 청구 할인 프로모션도 계속 진행한다.

한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은 다음달 1일부터 일반 판매된다.

기존 고객들의 갤럭시노트7 신제품 교환은 이달까지는 전국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달부터는 160여 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내 디지털프라자에서만 교환이 이뤄

진다.

갤럭시노트7 신제품으로 바꾼 고객은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서 '통신비 지원' 명목으로 3만원을 차감받는다.

갤럭시노트7을 반납하고 삼성전자의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사용자도 통신료에서 3만원을 면제받는다. 통신비 지원금은 내년 3월까지 삼성전자가 전액 부담한다. /뉴시스

'일·가정 양립' 위해 민관 힘 모으다

경제 5단체, 야근 줄이기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 추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7개 정부부처와 경제5단체가 힘을 모은다.

경제 5단체는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10대 제안은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강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등이다.

또한, 임산근로자 누구나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

업현장에 정착시킨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천호식품 서울사옥에서 관계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고영선) 주재로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근무혁신 방안 실천선언'을 통해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올 4분기부터 적극 확산하기로 했다.

경제 5단체는 '근무혁신 강조기간'을 지정하고, 회의·강연 등에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서의 실천 확산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생명보험 관련 민원 13% 줄어... 불완전판매도 감소

생명보험 관련 민원과 불완전판매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28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관련 민원은 1만543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3.2% 줄었다.

2014년도 상반기 민원은 2만7833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만7790건으로 줄어든 바 있다.

불완전 판매 역시 감소추세다.

보험 설계사의 생명보험 불완전 판매는 2014년 0.59%에서 지난해 0.46%로 감소했다.

방카시큐리티 불완전 판매는 2014년 0.10%에서 지난해 0.06%로, 대리점은 1.09%에서 0.99%로 줄었다. 홈쇼핑은 같은기간 1.10%에서 1.02%로 낮아졌다. /뉴시스

국립서울시립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